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고 찰	

I. 서 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교통과 산업의 발달은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대인에게 광범위한 보건학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불의의 사고(unintentional injury)이다. 불의의 사고(unintentional injury)는 우리나라 전 연령층에 걸쳐 사망원인 3위에 육박하는 주요한 보건학적 문제이며,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 연령층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불의의 사고로서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정책적,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명선 등, 2004).

우리나라 사고사망 분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중년기 이후 사고발생 수준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주요사망원인을 살펴볼 때 29세 미만 연령층의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9세 연령층에서는 5대 주요 사망원인의 2개 병인이 운수사고와 익사사고였다. 이러한 경향은 총 사망자수에 대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에서도 두드러지는데, 20세 미만 연령층의 사고사망 비율이 전체 사망원인의 50%를 넘어서 청소년 사망원인 과반수 이상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4).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신저자 : 이명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우: 120-750)
전화번호: 02-3277-2583, Email: leems@ewha.ac.kr

OECD 가입국가 중 상위 5위 안에 들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 연령층에 있어서 선진 외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상사고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전체적으로 OECD 가입국가들 중,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어린이 사고 사망자수는 10.07명으로 스웨덴의 4.98명에 비하여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심각한 어린이 사고 사망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이명선 등, 2004; WHO, 2004).

사고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질병과 같이 고위험군과 위험인자가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사고예방이 가능하다(이명선과 신현유, 2002). 사고발생의 가장 중요한 인적요인은 평소 생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만성질환들과는 달리 개인의 위험한 생활행동이 개인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제 3의 타인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히기가 쉬워서 개인의 평소 안전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효과적인 사고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된다(고재문과 이재현, 1997; Bever, 1996).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 틀 안에서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조화롭게 조정해 나간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틀 중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태도는 어린이들의 현재 및 미래 성인기 이후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지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된다(Christoffel과 Gallagher, 1999). 즉,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사고방식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명선, 2001). 더욱이 안전에 관한 태도나 실천행위 및 사회적 가치관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 어린이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모방성이 강하고 학습동기와 습득력이 강한 시기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활발히 할 때, 학령 초기부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다(정명에 등, 2000; Anderson, 1996; Fischer, 1996; DePanfilis와 Dubowitz, 2005).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이며, 사회문화적 관심 또한 높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안전지식, 안전행동, 안전교육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어린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들의 안전 의식 및 관심도에 대한 연구는 소수 이루어져 왔으나 미흡한 형편이다(김복주 등, 2001; 김학수 등, 2003). 이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어린이들의 학업능력 향상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사고예방에 대한 부모와 학교 및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협력체계 구축이 미비한데서 그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

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에 별도의 독립과목이나 시간이 할당되지 못하고 관련과목의 일부 단위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제 교육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석민 1999; 박성은 등, 2001; 성은현 등, 2001).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7개 대도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행동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향 모색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우리나라 7개 대도시 지역(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총 14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5학년은 501명, 6학년은 532명이었다. 본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중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연령집단인 5-6학년으로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대상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단계별 계통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광역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로 나누고(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1차적으로 각 시에 속하는 2개씩의 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각 구에 속하는 1개 초등학교씩을 다시 무작위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 각각 1개 반씩을 계통추출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의 내용 영역은 크게 생활안전행동, 안전교육 관심도, 안전교육 경험, 안전사고 발생, 일반적 특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생활안전행동은 8가지 영역(화재안전, 유독물질안전, 가정안전, 놀이스포츠안전, 자전거안전, 학교안전, 물놀이안전)에 대한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안전행동에 대한 질문은 어린이 안전행동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김민아와 이명선, 2001; 백경원과 이명선, 2001; 한성현, 2002;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 (NHTSA), 2002a; NHTSA, 2003),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안전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4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문항별 중요도도 모두 0.82에서 0.83 사이로 그 편차가 작아 안정된 분포를 보였다. 생활안전행동은 5점 '항상 한다'에서 1점 '전혀 안 한다'의 5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안전교육 관심도는 학생이 인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소 안전 및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각각 1문항씩 총 3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 질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5점 '매우 관심이 높다'부터 1점 '전혀 관심이 없다'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안전교육 경험은 평소 가정에서 부모가 자

녀들에게 하는 생활안전 지도 여부와 학교에서 교사들이 평소 학생들에게 하는 안전교육 여부로 부모와 교사에 대한 각각 1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경험에는 안전교육 실시시간, 받았던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을 부가적으로 파악하였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 병원치료를 받을 만한 사고의 경험 유무,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장소, 사고발생 원인,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부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거주형태, 등학교 방법, 및 부모의 학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설문지는 서울시 1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4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구성, 어휘 및 표현,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설문지 구성내용
생활안전행동	화재안전, 유독물질안전, 가정안전, 놀이스포츠안전,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학교안전, 물놀이안전
안전 관심도	학생의 안전 관심도, 부모의 안전 관심도, 교사의 안전 관심도
안전교육 경험	가정: 평소 부모님의 생활안전 지도 여부 학교: 평소 교사의 안전교육 여부, 안전교육 실시시간, 받았던 안전교육 내용, 받았던 안전교육 방법,
안전사고 발생	지난 1년간 학생사고경험, 사고발생횟수, 사고유형, 사고발생장소, 신체 상해부위
일반적 특성	성, 부모님의 학력, 거주형태, 등학교 방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편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각 학교 교감선생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각 학교 교감선생님 앞으로 협조요청 편지, 학생용 설문지, 그리고 우표와 회신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회신봉투를 발송하였으며 완료된 응답을 회신봉투에 넣어 우편발송을 통해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발송 후 3일째부터 대상학교 교감선생님께 설문지도착여부 확인과 설문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전화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발송한지 11일 만에 모든 14개 대상학교들로부터 작성된 설문지 회수가 완료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모두 컴퓨터에 부호화 처리하여 입력되었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함으로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고발생 정도, 안전교육 경험, 안전 관심도 및 생활안전행동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사고발생, 안전교육 경험, 및 안전관심도 정도에 따라 생활안전행동 점수의 차이는 t-검정이나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으로 검증하였으며, t-검정이나 일원분산분석에서 학생들의 생활안전행동 점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변수들을 선별하여 다단계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독립변수 간의 공분산을 통제 한 상태에서 안전행동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선정된 요인별 유의성과 설명력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일반적 특성

대상학생 중 남학생은 51.8%, 여학생은 48.2%로 성비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9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분포를 나타내었다. 등하교 방법으로 85.4%의 대상자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9.9%였다. 가족과의 거주상태로 82.1%의 대상자들의 부모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약 18%의 어린이들이 편부모, 형제자매, 친척, 혼자 자취 등의 거주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사고 발생 실태

지난 1년간 1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고를 경험한 학생이 32.3%로 30% 이상의 어린이들이 1회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사고 횟수는 1회가 62.1%로 가장 많았으나 4회 이상의 사고다발자도 7.3%나 되었다. 사고의 종류는 부딪힘, 넘어짐, 베임과 같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9.2%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는 20.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약 50% 정도의 사고가 학교 건물, 학교 운동장, 또는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였다. 학교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23.7%였고,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15.3%였으며 등하교길 사고도 11.5%로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집안이나 집 주변의 골목

표 2. 지난 1년간 학생의 사고발생 경험

구분	명(%)	구분	명(%)
사고경험 여부		사고발생 장소*	
예	324 (32.3)	학교 건물 내	107 (23.7)
아니오	679 (67.7)	학교 운동장	69 (15.3)
사고 횟수		학교 주변이나 등·학교길	52 (11.5)
1회	187 (62.1)	집안	65 (14.4)
2회	65 (21.6)	집 주변 골목이나 도로	61 (13.5)
3회	27 (9.0)	놀이터나 공원	30 (6.7)
4회 이상	22 (7.3)	큰 도로 주변	14 (3.1)
사고의 종류*		산이나 바다(여행 중)	6 (1.3)
교통사고	94 (20.8)	기타	47 (10.4)
낙상사고	15 (3.3)	신체 상해 부위*	
화상사고	23 (5.1)	눈	24 (5.5)
익사사고	4 (0.9)	머리	54 (12.3)
부딪힘, 넘어짐, 베임	267 (59.2)	팔이나 다리	163 (37.1)
유독물질에 의한 질식 및 중독사고	3 (0.6)	손이나 발	120 (27.3)
기타	45 (10.0)	뺨, 치아	34 (7.8)
		귀, 고막	7 (1.6)
		신체내 기관(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6 (1.4)
		귀, 고막	7 (1.6)

주: * 복수응답, n=1,033, 문항별 무응답이나 복수응답 처리로 인하여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나 작은 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28% 정도로서 어린이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학교와 집, 그리고 학교와 집 주변임을 알 수 있었다.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부위로는 팔이나 다리의 사지부분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손이나 발로서 27.3%였다. 또한 머리를 다친 응답자도 전체 12.3%로 10%를 넘는 높은 수준이었다.

3) 안전교육 경험 실태

초등학생 대상자들이 받았던 안전교육 정도를 가정과 학교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정에서 평소 부모님들이 안전행동을 지도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7.4%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서 가정에서 부모의 안전생활지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에서 받았던 안전교육의 시기로 46.7%가 수업시간에 받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특별한 학교행사에 대비하여 받은 경우가 35.4%였다. 즉, 수학여행이나 캠프, 또는 소풍이나 특정 사고발생이 높은 계절 전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약 과반수의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회시간이나 교내방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31.9%와 18.7%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당부분의 안전교육은 20분 내에 끝나는 전달식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받았던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화재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의 순이었는데, 이중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교육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강의식과 주제 관련 비디오 상영이 4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실험이나 실습 또는 견학의 경험학습방법이 약 40%의 대상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생들의 안전교육 경험

구분	명 (%)
가정	
부모의 안전행동 지도 여부	
예	953 (93.2)
아니오	69 (6.8)
학교	
교사의 학교안전교육 여부	
예	868 (87.4)
아니오	125 (12.6)
안전교육을 받은 시기*	
수업시간	461 (46.7)
조회시간	315 (31.9)
학생사고가 발생한 후에	174 (17.6)
특별한 학교행사	349 (35.4)
교내 방송을 통해서	184 (18.7)
방학 직전과 직후	247 (25.0)
안전교육 내용*	
가정안전	560 (55.6)
학교안전	619 (61.5)
물놀이 안전 및 응급처치	527 (52.3)
교통안전	735 (73.0)
놀이, 스포츠활동 안전	528 (52.4)
화재안전	650 (64.5)
여행안전	558 (55.4)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392 (38.9)
안전교육 방법*	
강의	449 (45.3)
그룹토의	18 (1.8)
실습, 실험, 체험	263 (26.5)
견학	137 (13.8)
비디오 및 DVD 상영	453 (45.7)
모형제작	23 (2.3)
사진이나 슬라이드	98 (9.9)
역할극	42 (4.2)

주: * 복수응답, n=1,033, 문항별 무응답이나 복수응답 처리로 인하여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표 4.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구분	명 (%)
학생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27 (2.7)
그렇지 않다	27 (2.7)
보통이다	215 (21.3)
그렇다	311 (30.8)
매우 그렇다	430 (42.6)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0.4)
그렇지 않다	12 (1.2)
보통이다	254 (24.7)
그렇다	432 (42.0)
매우 그렇다	326 (31.7)
교사의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19 (1.9)
그렇지 않다	40 (3.9)
보통이다	283 (27.6)
그렇다	338 (32.9)
매우 그렇다	346 (33.7)

주: n=1,033, 문항별 무응답으로 인하여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학생, 부모, 교사의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3.4%였고, 부모가 73.7%, 교사가 66.6%로 학생과 부모에 비해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에서는 학생이 2.7%, 부모가 0.4%, 교사가 1.9%로서 관심이 없는 대상에 있어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안전 관심도가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4).

5) 평소 안전행동 실천

학생들이 평상시 꼭 실천해야 하는 안전행동을 화재안전, 유독물질안전, 가정안전, 놀이스포츠안전,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학교안전, 물놀이안전 영역별로 고려하여 20문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배점한 결과 표 5와 같은 실천점수 분포를 보였다. 전열기구를 만질 때의 감전예방 행동, 가스사용 시 올바른 밸브사용,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올바른 응급처치, 부엌의 식품사용 시 내용물 확인,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사다리 사용,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횡단 등에 대한 실천정도는 모두 평균 4.2점을 넘어서 실천율이 높았다. 반면, 실내에서의 비상문의 위치 확인,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 복도와 회전로에서의 부딪힘 주의에 대한 안전행동 실천점수는 3.0 미만으로서 그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행동은 그 실천율이 매우 낮았다.

2. 일반적 특성, 사고경험, 안전교육 경험, 안전 관심도에 따른 안전행동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사고경험, 안전교육 경험,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안전행동 점수를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살펴본 결과가 표 6과 표 7이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5). 그러나 가족과의 거주상태에 따라서는 안전행동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안전행동 실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사고발생 경험에 따라서는 사고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안전행동 평균점수는 3.72였고

표 5. 학생의 평소 안전행동 실천 정도

항 목	Mean±S.D.
1. 실내에 들어갈 때는 비상문의 위치를 파악한다.	2.87±1.19
2. 전열기구나 콘센트를 만질 때 손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4.29±1.02
3.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중간밸브를 잠근다.	4.28±1.15
4. 가스나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동안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3.73±1.11
5. 유독물질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4.39± .96
6.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는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3.43±1.34
7. 부엌의 양념이나 약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려는 제품이 맞는지 확인한다.	4.20±1.05
8. 카구위로 물건을 정리하거나 전구를 교체할 때 가정용 사다리를 이용한다.	4.26±1.11
9. 차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을 꼭 쓴다.	1.87±1.24
10. 차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때에는 차전거에서 내려 차전거를 밀면서 건너간다.	3.14±1.46
11.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를 찾는다.	3.89±1.12
12.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차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다.	4.25± .98
13.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옆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3.40±1.31
14. 차를 타면 곧바로 안전벨트를 맨다.	3.41±1.32
15. 실험이나 실습시간에 사용하는 시약이나 기구는 조심해서 다룬다.	4.17± .95
16. 복도와 계단에서 커브를 돌 때 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2.95±1.11
17. 등하교시 공사 또는 수리중인 지역은 피해서 돌아간다.	3.83±1.14
18. 수영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한다.	3.69±1.26
19. 수영장 안전요원이 보이는 범위에서 수영을 한다.	3.67±1.24
20. 야외에서 수영할 때는 자외선 차단크림을 바른다.	3.47±1.42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3.59로서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사고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평소 안전행동 실천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 경험을 가정에서 부모의 안전지도와 학교에서 교사의 안전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의 평소 자녀에 대한 올바른 안전행동 지도 정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았다(F=24.81, p= .000). 또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경험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t= .188, p= .068).

표 6. 일반적 특성, 사고발생 유무,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생활안전행동

특 성	안전행동 점수 Mean±S.D.	t 또는 F
성		
남	3.63± .62	-2.30*
여	3.72± .54	
가족과의 거주상태		
부모형제와 함께 거주	3.69±1.16	.03
기 타	3.62±1.16	
지난 1년간 사고경험		
예	3.59±1.22	-3.10**
아니오	3.72±1.13	
부모의 평소 안전행동 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	3.17±1.43	24.81***
그렇지 않다	3.22±1.29	
그런 편이다	3.55±1.10	
자주 그렇다	3.78±1.01	
언제나 그렇다	3.88±1.17	
학교안전교육 경험		
예	3.69±1.11	1.88*
아니오	3.55±1.50	

* p< .05, ** p< .01, *** p< .001

안전 관심도에 따른 안전행동 점수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에서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안전행동 점수는 3.39였으며 관심도 정도가 높아질수록 안전행동 점수도 높아져서 '매우 그렇다'의 경우 안전행동 점수는 3.82였다($F=14.50, p=.000$).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일 경우 안전행동 실천점수는 3.35였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그 안전행동 점수가 3.86이었는데($F=19.39, p=.000$),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경우에도 같았다($F=12.60, p=.000$).

표 7.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에 따른 생활안전행동

특 성	안전행동 점수 Mean±S.D.	t 또는 F
학생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3.39±1.67	14.50*
그렇지 않다	3.50±1.20	
그런 편이다	3.47±1.19	
그렇다	3.67±1.06	
매우 그렇다	3.82±1.07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3.35±.50	19.39*
그렇지 않다	3.27±2.10	
그런 편이다	3.43±1.15	
그렇다	3.69±1.02	
매우 그렇다	3.86±1.18	
교사의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3.20±1.80	12.60*
그렇지 않다	3.44±1.42	
그런 편이다	3.56±1.11	
그렇다	3.67±1.11	
매우 그렇다	3.83±1.10	

* $p < .001$

3. 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원분산분석과 t-검정을 통해서 안전행동 실천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서로의 공변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총 6개 요인이 학생들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평소 안전지도 여부, 학생의 안전 관심도, 교사의 학생안전 관심도, 학생의 사고유무, 부모의 안전 관심도,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8). 부모의 평소 자녀에 대한 안전지도가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10.04%였다. 그 다음이 학생의 안전 관심도와 교사의 안전 관심도였으며 각각의 영향력은 약 5%와 3%였는데,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정도도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모두가 학생의 안전행동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 간 공분산을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부모의 평소 안전지도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사고경험이 없으며, 부모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았다. 선정된 6개 요인의 학생 안전행동에 대한 총 분산설명력이 20.5%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행동 실천에 약 20% 정도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34.01, p < .001$).

표 8. 초등학교 어린이의 생활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B	Beta(β)	t	Partial R ²
Constant	29.22		8.23***	
부모의 평소 안전행동 지도	2.90	.23	6.17***	.104
학생의 안전 관심도	2.16	.18	5.62***	.047
교사의 학생안전 관심도	1.94	.16	4.92***	.026
학생의 지난 1년간 사고경험	3.11	.13	3.89***	.015
부모의 안전 관심도	1.85	.13	3.41**	.013
아버지의 학력	1.37	.08	2.41*	.006
R= .459				
Adjusted R ² = .205				
F= 34.010***				

* p<0.05, ** p<0.01, *** p<0.001

IV. 고 찰

사고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인추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사고발생 및 그 영향을 막을 수 있다. 사고발생의 가장 중요한 인적요인은 평소 생활행동으로 구체화되고 다른 만성질환들과는 달리 개인의 위험한 생활행동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제 3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가 쉬워서 개인의 평소 안전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그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 틀 안에서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조화롭게 조정해 나간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틀 중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태도는 어린이들의 현재 및 미래 성인이 이후의 바람직한 지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므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안전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ahn 등, 2001).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정도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7개 대도시 지역에 소개하는 총 14개 초등학교 5학년 501명과 6학년 학생 532명의 총 1,03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본 조사연구에서 대상자들 중, 32.3%인 약 1/3이 지난 1년간 병원에 1회 이상 방문할 정도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놀이나 활동 중에 많이 발생하는 '부딪힘, 넘어짐, 배임'과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중상 이하 수준의 어린이 사고발생이 생각보다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사고가 인구 10만 명 당 약 5명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통계청, 2004),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서 평소의 안전지도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에서는 교통사고가 50% 내외

를 차지하여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고사망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데(박경환과 김태식, 1994), 본 조사에서와 같은 경상 수준의 사고에서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지부분의 타박상이나 찰과상, 절상 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고의 치명도와 빈도를 절충적으로 고려한 어린이 안전지도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고는 약 50% 이상이 학교시설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와 가정에서 받았던 안전지도나 교육경험은 가정(93.2%)이 학교(8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에서의 안전지도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배영한(2000)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사고발생의 장소로 학교가 보고되었고 특히, 휴식시간과 운동장 놀이 활동 중에 사고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조사에서 학교 건물 안이나 운동장에서의 사고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으며 미국 교통안전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NHTSA, 1999). 학교와 함께 어린이들의 사고발생 장소로 빈번히 보고되는 곳이 가정인데, 김탁희와 이명선(2002)의 연구에서는 가장 어린이 사고발생이 높은 곳으로 가정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가장 빈번히 사고를 경험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지도 정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소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지도가 학교보다 더 세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안전지도의 역할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교육을 위한 정규시간이나 교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지도의 수준이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본 연구결과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중,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며(46.7%) 많은 경우 특별한 학교행사나 조회 및 종례의 짧은 불규칙적인 시간에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와 사고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배정미, 2002).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간 21-23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모든 초등과 중등 학교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4) 일부 초등학교를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각급 학교들의 경험을 확장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의 관심도가 모두 70% 이상이었으며 교사의 안전 관심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도가 학교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린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어른들의 평소 안전 관심도는 곧 안전지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학부모와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박희숙 등, 2000). 이는 이한용 등(2001)의 연구에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안전 관심도 부족이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학생 본인, 학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다단계 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서 부모의 평소 자녀에 대한 안전지도 다음으로 학생의 안전 관심도와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어린이들의 안전행동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복주 등(2001)과 김주형 등(2002)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가정 내 어머니들의 안전의식, 위험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 지도에 대한 관심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들의 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으로서 부모와 담임교사의 중요성이 크고 또한 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평소의 안전지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어린이들의 안전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도를 체계화하고 확충하는 과정에 부모와 교사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가정과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V. 결론

우리나라 사고사망 분포의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중년기 이후 사고발생 수준보다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세 미만 연령층의 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7개 대도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행동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방향 모색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7개 대도시 지역(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총 14개 초등학교 5학년 501명과 6학년 학생 532명의 총 1,0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대상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단계별 계통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로 단계적으로 무작위추출을 하였으며 마지막 조사학급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계통추출을 사용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중, 32.3%가 지난 1년간 병원에 1회 이상 방문할 정도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놀이나 활동 중에 많이 발생하는 '부딪힘, 넘어짐, 베임'과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고는 약 50% 이상이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팔이나 다리 등의 사지를 다치는 사고가 60% 이상이었다. 학교와 가정에서 받았던 안전지도나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안전지도 경험(93.2%)이 학교에서 받았던 안전지도나 교육 경험(8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 중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받은 경우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며(46.7%) 많은 경우 특별한 학교행사나 조회 및 종례의 짧고 불규칙적인 시간에 경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본인과 부모의 관심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교사의 안전 관심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열 기구를 만질 때의 감전예방 행동, 가스사용 시 올바른 밸브사용,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올바른 응급처치,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횡단 등에 대한 실천정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실내에서의 비상문의 위치 확인,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 복도와 회전로에서의 부딪힘 주의에 대한 안전행동 실천점수는 상대적으로 그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단계 중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평소 자녀에 대한 안전지도가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10.04%였다. 그 다음이 학생의 안전 관심도와 교사의 안전 관심도였으며 각각의 영향력은 약 5%와 3%였는데,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정도도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모두가 학생의 안전행동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평소 안전지도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사고경험이 없으며, 부모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본인과 주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주요한 설명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규칙

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와 담임교사들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학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환경개선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사고발생 및 그 특성분포에서도 볼 수 있었던듯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고는 대부분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며 부주의나 실수로 오는 타박상이나 절상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과 환경개선의 노력이 균형 있게 강화되어야 하겠다.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우선적으로 10-20분 동안 짧게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교육현실을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주변 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지식 및 실천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지식과 실천의 괴리를 좁혀서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을 학생 참여와 경험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교재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일회성의 원리와 실천교육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실천에 가까운 경험학습을 통하여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간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접수일자: 2005.7.20, 게재확정일자: 2005.9.9>

참고문헌

오재문, 이재현. 학교안전사고와 응급처치에 관한

-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997;1(1): 112-12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제7차 교육과정에
서의 안전 교육 현황<유치원-초등학교>. 2004; http://www.moe.go.kr/bbs/board.php?action=view&tn=moebbs&db=bbs7_4&id=3&catmenu=m0707&SearchCode=all&search=안전교육.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학교 등의 교통안
전교육 체계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 김민아, 이명선. 서울시 고등학생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3):131-160.
- 김복주 외. 농촌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
전사고 발생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
12(3):131-160.
- 김주형 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02;8(4):181-191.
- 김탁희, 이명선.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분석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2):45-63.
- 김학수 외.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과제-학
교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대전: 충청남
도 교육청, 2003.
- 박경환, 김태식.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 경기: 교통개발연구원, 1994.
- 박성은 외. 학교의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 중
안간호논문집 2001; 5(2):79-88.
- 박화숙 외. 초등학교 안전생활 실태 및 아동의 안전
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경북간호과학지*
2000;4(1):67-78.
- 배영한.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관한 아동의
인식[석사학위논문]. 경남: 경남대학교 대학
원, 2000.
- 배정아.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 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2;8(4)
:435-448.
- 백경원, 이명선. PRECEDE 모형을 이용한 일부 초
등학교 안전교육의 진단적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01;18(1):35-47.
- 성은현 외. 학교 등의 교통안전교육 체계적 추진방
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무조정실 안전관리
개선기획단, 2001.
- 이명선, 신현유. 21세기 선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방안. 서울: 대통령자
문 정책기획위원회, 2002.
- 이명선, 박경옥, 허억, 이유리. 학교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 이한용 외. 아동의 안전에 관한 인식과 교육 실태
조사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
(3): 57-73.
- 장석민.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전
보건 1월호 1999;19-25.
- 전순호. 중학교 안전교육의 실태 및 요구 분석에 따
른 개선방안[박사학위논문]. 서울: 경기대학
교 대학원, 1999.
- 정명애 외. 학교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0; 11(2):576-576.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2004.
- 한성현. 일부 고등학생들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
사고 실태와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2002;19(1):1-15.
- Anderson, L. Health & safety curriculum,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1996.
- Bever DL. Safety: A personal focus. Mosby; St.
Louis, 1996.
- Christoffel T, Gallagher SS. Injury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An aspen publication;
Gaithersburg, Maryland, 1999.
- DePanfilis D, Dubowitz H. Family connections:
A program for preventing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2005;10(2):108-123.
- Fischer MW. Health & safety curriculum-
intermediate,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1996.
- Kann et al. Health Education: Results from the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0. *Journal of School Health*
2001;71(7):266-278.
- Lantz P et al. Evaluating guidebook for

community youth safety programs.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1999.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Back to school,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8.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Pedestrian safety toolkit:
user manual,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9.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Biddability checklist: How
bikeable is your communit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02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afety routes to school,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02b.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road traffic injury prevention.
Switzerland: WHO/The World Bank, 2004.

<ABSTRACT>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afety Concerns Affecting Students' Safet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

Myung-Sun Lee

Dept. of Health Education in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More than 80% of unintentional injury was related to risk-taking behaviors involved in child accidents. Therefore, diverse care and concerns on safety should be provided from teachers as well as parents to build child safety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afety concerns from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on elementary students' safety behaviors in Korea.

Methods: The 5th and 6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14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nd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was 1,033. The study schools were selected by th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throughout 7 metropolitan area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the self-administered survey and the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the vice-principals of the designated schools by ground postal service and the vice-principals conducted survey data collection. The questions on students' safety concerns, teachers' safety concerns, parents' safety concerns, safety practices, safety education, and demographic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All survey responses were encoded into SPSS program and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Results: The students taking accidents one time more per year were more than 60% and the two thirds of them recognized that their accidents were due to their risk behaviors. Parents' education on safety practices was more frequent than teachers' education; furthermore, teachers' concerns on safety behaviors were poorer than students' or parents' concerns. In terms of safety behaviors, the scores of fire and home-related safety behavior were high but the scores of traffic and bicycle, in particular, helmet wearing practice were low. Three concerns from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l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safety behaviors.

Conclusions: In conclusion, safety concerns from the close networks are the important indicator of child safety behaviors and, the safety training programs, therefore, for parents and teachers as well as for students need to be developed for improving children's safe behaviors.

Key words : Safety Concerns, Safety Behavior, Elementary School, Child, Parent, Teacher